

예언자의 위상과 정중 어법

— 열왕기하 5:1-19 나아만 치료 사건을 중심으로 —

김성언*

1. 들어가는 말

열왕기하 5장은 아람의 한 장군(나아만)이 여러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 자신의 질병¹⁾을 치료받게 되는 흥미로운 본문이다.²⁾ 여기에는 어린 소녀부터 아람의 왕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명 이상의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한다.³⁾ 등장인물의 신분 차이는 대부분 그들이 갖는 직책이 결정해 준다. 왕, 장군, 종과 같은 직책명은 당시 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 Tel Aviv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sungon.kim71@gmail.com.

- 1) 나아만이 앓은 질병은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문둥병(leprosy)’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통은 히브리어 ‘짜라앗(צַרְעַת)’을 헬라어 ‘레프로스(λεπρός)’로 옮긴 칠십인역의 번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나아만이 실제로 앓은 질병이 한센병인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헬라시대 이전까지는 지중해 지역에서 한센병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T. Seidl, “צַרְעַת”, *TDOT* 12 (2003), 473-474. 밀그롬(J. Milgrom)과 같은 주석가들은 이 질병을 피부질환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J.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1), 775-77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 여전히 이 질병을 ‘leprosy’와 연결하고 있다(ESV, NKJV, NAS, NRSV 참조). 한편, 개신교의 『개역개정』(1998) 성경과 가톨릭의 『성경』(2005)은 ‘문둥병자’라는 용어 대신 ‘나병 환자’로 부르고 있다.
- 2) 이 본문에 대한 비평적인 연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주석서를 제외하고, 다양한 접근법으로 연구한 소논문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R. L. Cohn, “Form and Perspective in 2 Kings V”, *VT* 33:2 (1983), 171-184; Jean Kyoung Kim, “Reading and Retelling Naaman’s Story (2 Kings 5)”, *JSOT* 30:1 (2005), 49-61; S. Lasine, “Elisha, Naaman and the Meaning of Monotheism in 1 Kings 5”, *SJOT* 25:1 (2011), 3-28.
- 3) T. R. Hobbs, *2 Kings*, WBC 13 (Waco: Word Books, 1985), 59.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리고 낮은 신분의 인물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상대방을 ‘나의 주’로 부르는 어법을 통해 자신의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종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왕 앞에서는 단지 ‘종’일 뿐이다. 나아만은 아람왕을 ‘주인’으로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 부른다.

신분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 다소 모호한 경우에는 성서 번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언자와 왕 혹은 예언자와 고위직 신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열왕기하 5장 본문에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의 관계 혹은 엘리사와 나아만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대화 장면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실제로 열왕기하 5:5와 5:10 본문은 개신교의 『개역개정』(1998) 성경과 가톨릭의 『성경』(2005)이 번역한 내용상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구절들이다.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성서 본문은 등장인물의 위상 차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시를 남겨두고 있다. 성서 번역자들이 이러한 표시들에 기초하여 번역할 때 본문의 메시지는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것이다.

본 연구는 히브리어 본문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신분 차이나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화법을 우리말 성경이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있는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말 성경 중에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하 『개역개정』[1998]), 『성경전서 새번역』(이하 『새번역』[2004]),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이하 『공동개정』[1999]), 그리고 『성경』(2005)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정중 어법과 존대법

히브리어 성서 본문에 나타난 정중 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언어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중 이론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번역되어야 할 언어가 우리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어 존대법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4) 『개역개정』은 두 경우 모두 ‘헤라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은 각각 ‘하오체’(5:5)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 “3.3. 나아만과 아람 왕”과 “3.7. 엘리사와 나아만”을 참조하시오.

2.1. 한국어 존대법과 정중 어법

우리말에는 존대법 체계와 함께 정중 어법이 상존한다. 우리말에서는 성별, 나이, 직업, 사회적 역할에 따른 사회학적인 인간관계가 언어학적으로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존대법 체계를 기본으로 만족시킬 때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존대법은 문법적 범주에 속한 것으로 경어법, 대우법, 높임법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처럼 ‘법’으로 불린다는 것은 존대법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정중 어법은 나이나 직위 혹은 위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공손하고 점잖은 말이다.⁵⁾ 김광해 외 2인의 『화법』 교과서에서는 정중 어법을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말하기”로 정의하고 있다.⁶⁾ 무엇보다도 정중 어법은 고정된 문법 형식을 갖기 보다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화용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중 어법은 학자에 따라 공손성, 공손법, 공손 어법, 공손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⁷⁾ 언어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바는 정중 어법은 범언어적 공손 전략이라는 것이며, 한국어를 비롯해서 몇몇 언어군에는 별도의 존대법 체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중 어법과 존대법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정중 어법이 범언어적인 공손 전략인 만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언어에서 발견되는 존대법을 정중 어법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⁸⁾ 이러한 견해에서는 존대법을 보다 세부적인 개념으로 보다 넓은 개념의 정중 어법 테두리 내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존대법이 정중 어법의 일환으로 수렴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⁹⁾ 비록 존대법과 정중 어법이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둘은 별개의 장치로 서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중 어법은 범-언어적인 현상인 만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존대법은 우리말을 비롯해서 특정 언어군이나 지

5) ‘정중 어법’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는 ‘politeness’이다. 이 단어는 한국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공손성’이나 ‘공손 어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6) 김광해, 박호영, 신명선, 『고등학교 화법』(서울: 형설출판사, 2003).

7) 본 연구에서는 ‘정중한 표현’을 정중 어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8) 대표적으로 P. Brown and S.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9) 대표적으로 Juck-Ryoon Hwang,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1990), 41-55.

역에서 발달한 정중 어법의 한 방편으로 간주한다. 우리말 사용자들은 존대법을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정중 어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존대법은 이에 맞지 않게 말할 경우에는 원만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과도 같다. 하지만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존대법만으로는 충분히 정중한 표현이 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때 화자는 주어진 화용론적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게 된다. 결국 정중한 표현은 문법적인 존대법만 사용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존대법 요소와 함께 비문법 또는 화용론적 범주에 속하는 정중 어법이 함께 충족될 때 화자가 의도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에 최대한 근접하게 된다.

2.2. 한글 성서에 반영된 한국어 존대법과 정중 어법

구약성서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우리말과 같은 별도의 존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존대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지만 구약성서에는 정중 어법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 번역을 위해서는 우리말 존대법 연구와 함께 구약성서에 대한 정중 어법 연구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2.2.1. 한글 성서와 존대법 - 국어학적 관점

한국어 존대법 측면에서 성서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해영¹⁰⁾, 전무용¹¹⁾, 박덕유¹²⁾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한국어 성경이 우리말 존대법이나 정중 어법에 맞게 번역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전해영은 우리말의 호칭어의 특징을 개괄한 후 한글 성서(주로 『개역한글』과 『표준』)에서 호칭어를 한국어 호칭어 용법에 맞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특별히 그는 『개역한글』에서 사용된 2인칭 대명사 ‘너’와 ‘당신’이 순위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는 우리말 존대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준』에서는 관계를 표시해 주는 실명사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¹³⁾ 그리고 『개역한글』에서 사용된 2인칭 대명사 ‘너’ 대신 『표준』에서는 ‘그대’,

10) 전해영, “한글성서 번역에 나타난 호칭어”, 『성경원문연구』 13 (2003), 75-91.

11)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7-122;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7-122.

12)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9.

13) 전해영, “한글성서 번역에 나타난 호칭어”, 『성경원문연구』 13 (2003), 82.

‘자네’, ‘당신’ 등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대의 정도(등급)에 따라 선택한 결과다.¹⁴⁾ 결과적으로 전해영의 연구는 존대법 측면에서 『개역한글』의 단점을 『표준』에서 상당 부분 보완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말 성경의 존대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용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된다.¹⁵⁾ 그는 우리말에서 존대법을 위한 2인칭 대명사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¹⁶⁾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 ‘당신’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대신에 ‘하나님, 스스로는’ 또는 ‘하나님, 자신께서는’처럼 재귀적 용법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¹⁷⁾ 전무용은 이어서 대화문의 종결형을 존대법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우선 우리말 존대법 체계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존대말과 반말’과 같이 높임과 낮춤의 수직 개념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개념인 ‘격식체’와 ‘비격식체(또는 친밀어)’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⁸⁾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체로 ‘격식체(존대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역한글』 성경의 전통이 여전히 존중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정서상 대부분의 개신교 번역이 ‘비격식체(반말)’를 선호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¹⁹⁾

전무용은 존대법 문제를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다루고 있다.²⁰⁾ 특별히 겸손함과 정중함을 나타내는 우리말 1인칭 대명사 ‘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²¹⁾ 결국 이 문제는 친밀성과 중립성이 강조될 때는 ‘나’를 선호하고, 겸손함과 정중함을 표현할 때는 ‘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²²⁾ 그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 문제는 『새번역』처럼 ‘형님/아우님’과 같이 실명사를 사용한 번역을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번역으로 본다.²³⁾ 마지막으로 『개역한글』의 창세기 24:7은 3인칭 대명사 ‘그’를 하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어 대명사 전통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²⁴⁾

14) Ibid., 83.

15)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체언과 용언의 표현을 중심으로”, 『성경 원문연구』 15 (2004), 59-81.

16) Ibid., 60.

17) Ibid., 62.

18) Ibid., 75-76.

19) Ibid., 76-78.

20)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7-122.

21) Ibid., 104-108.

22) Ibid., 107-108. 예를 들어,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창세기 39:9의 1인칭 대명사로 ‘저’를 선택하고 있고 『새번역』은 창세기 32:11에서 ‘저’를 사용하고 있다.

23) Ibid., 112.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역할을 고려하면 형 아론에 대하여 ‘당신’으로 부르는 번역도 가능하다고 본다.

24) Ibid., 115.

국어학자인 박덕유는 존대법 연구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진행했다.²⁵⁾ 박덕유는 우선 존대법 체계를 격식체 4화계(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 비격식체 2화계(해요/해)로 구별한다.²⁶⁾ 이 중 예사높임인 ‘하오체’와 예사낮춤인 ‘하계체’를 오늘날 젊은 세대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적절한 상호 보완이 올바른 성서 번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⁷⁾ 그에 따르면, 한국어 성경에서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라체’를 사용한 반면에, 대체사장과 빌라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⁸⁾ 박덕유는 이러한 확실적이고 격식적인 존대법을 지양하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형태의 존대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친근감을 주는 ‘해요체’나 격식성이 조금 낮은 ‘하오체’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²⁹⁾ 존대법 체계에서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장면 중 하나인 예수님과 당대 최고 권력자들(대제사장 또는 빌라도 총독) 사이의 대화에서는 ‘하오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조지윤의 견해를 받아들인 결과다.³⁰⁾

2.2.2. 한글 성서와 존대법 - 번역학적 관점

우리말 존대법 측면에서 신약성서 본문을 분석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조지윤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이다.³¹⁾ 조지윤의 연구는 우리말 존대법 적용 문제를 일반 번역이론과 정중어법에 대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 무엇보다도 그의 연구는 신약학자의 연구라기보다는 번역학자의 영역으로 구별해야 할 것이다. 조지윤은 정중(그의 용어로 공손) 어법과 존대법에 관한 연구를 예수님의 재판 장면(막 14:58-65)에 적용했다. 그는 존대법에 맞는 우리말 번역을 위해 우선 두 가지 측면의 이론적인 틀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공손에 대한 일반 언어학적 이론들을 고찰하는 것이며(2장 참조),³²⁾ 다른 하나는 직역부터 최근의

25)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7.

26) Ibid., 85-86.

27) Ibid., 86-87.

28) Ibid., 90-99.

29) Ibid., 92.

30) Ibid., 95-99.

31) Ji-Youn Cho,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Ph.D. Dissertation, Vrije University, 2008.

32) Ibid., 61-68.

스코포스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경 번역 접근법 내에서 존대법을 위치시키는 작업이다(3장 참조).³³⁾ 조지윤은 원천 본문(source text)의 사회적이고 문화적 측면의 공손 어법이 최종적으로 대상 본문(target text)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일반 정중 이론과 번역 이론을 정립한 후 논문 마지막 부분(5장)에서 자신의 번역을 제안한다.³⁴⁾ 결론적으로 조지윤은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의 대화는 쌍방 모두 격식체 중에서 ‘하오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2.3. 구약성서와 정중 어법 연구

구약학계의 정중 어법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후대에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도 구약학계 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아니다. 구약성서의 정중 어법 연구는 관련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2.3.1. 성서 히브리어 학계의 정중 어법 연구

정중 이론³⁵⁾을 바탕으로 성서 히브리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밀러(C. L. Miller)와 레벨(E. J. Revell)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³⁶⁾ 밀러는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히브리어에서는 호칭(terms of address)과 공손한 표현(deferential forms)이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언어 전략이다.³⁷⁾ 우선 호칭은 대화 참여자 사이의 친밀감(intimacy)이나 사회적 거리감(distance)을 표시해 준

33) 조지윤은 후에 우리말 독자들을 위해 한글로 소개하고 있다.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34) 참조, Ji-Youn Cho,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131-203;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 - 청자 존대법 번역 문제”, 『신약연구』 7:4 (2008), 619-648에서 논문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5) ‘정중 이론’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사용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중 이론’과 ‘정중 어법’은 구별해서 사용한다. 정중 이론을 언어학이나 성서 히브리어에 국한하여 사용할 때에는 ‘정중 어법’이라고 부른다.

36)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nguistic Analy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2003), 269-281;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2003), 267-294. 성서 히브리어 정중 어법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십시오.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91-93.

37)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269.

다.³⁸⁾ 예를 들어, ‘나의 주’ 또는 ‘나의 주 왕’과 같은 호칭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한다. 친밀감을 높이는 호칭들은 대부분 가족적인 용어에서 나왔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형제’라는 호칭들이 대표적이다. 공손한 표현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회적 차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한다.³⁹⁾ ‘당신의 종’ 또는 ‘당신의 여종’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일종의 청자-중심 공손(addressesee-based deference) 표현이다. 반면에, ‘나의 주’와 같은 표현은 화자가 청자의 높은 사회적 위상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밀러는 이러한 표현을 화자-중심 공손(speaker-based deference) 표현으로 부른다.⁴⁰⁾ 이러한 공손 표현들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나’라는 1인칭과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공손 어법이다. 밀러에 따르면, ‘그 왕’이라는 3인칭 대명사가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 대신 사용되는 경우는 화자가 청자와의 거리를 좀 더 멀게 나타냄으로써 더 공손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⁴¹⁾

레벨은 공손 어법이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를 보고 있다.⁴²⁾ 하지만 사회적 지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⁴³⁾ 공손 어법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높은 사람에게 요청할 때 효과적인 언어 전략이다.⁴⁴⁾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지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일국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강대국의 왕 앞에서는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 부른다(왕상 20:32의 벤하닷 참조).⁴⁵⁾ 그런데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공손한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공손 어법⁴⁶⁾은 1) 공손한 명사(호칭어)의 사용이다.⁴⁷⁾ 사회적 지위가 낮은 화자는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고, 청자를 ‘나의 주’로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2) 사회적 지위가 높

38) Ibid., 269-271.

39) Ibid., 271.

40) Ibid., 271-272.

41) Ibid., 273-274.

42)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6), 43.

43) Ibid., 265-322.

44) Ibid., 265-322.

45) Ibid., 269.

46) 밀러(C. L. Miller)와 레벨(E. J. Revell)은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중 어법(politeness strategies)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손 어법(deferential language)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이 두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두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할 때는 정중 어법이라는 용어보다는 공손 어법을 사용할 것이다.

47) Ibid., 267.

은 청자를 2인칭 대신 3인칭 명사를 사용하는 용법이다. 예를 들어, 왕에게 요청을 할 때 신하들은 ‘당신(you)’이라는 말 대신 ‘그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손 어법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요청하는 장면이다.⁴⁸⁾ 화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요청할 때, 그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기 위한 언어 전략을 사용한다.⁴⁹⁾ 청자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협의 정도는 가중된다. 만약, 3인칭 공손 어법이 적절한 곳에서 예상과 달리 1인칭이나 2인칭 용법이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다.⁵⁰⁾

2.3.2. 불변화사 ‘נָא’

오늘날 상당수 학자들은 히브리어 불변화사 נָא가 일종의 ‘정중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변화사 נָא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중 어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이 불변화사 נָא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게제니우스의 견해는 포괄적이면서도 복잡하다. 게제니우스(Gesenius)는 ‘불변화사’ נָא가 명령형이나 지시형에 자주 추가되는데, 때로는 명령을 부드럽게 하거나 요청을 보다 공손한 형태로 만들고, 때로는 책망이나 위협하는 말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⁵¹⁾ 게제니우스는 다른 곳에서 נָא를 ‘감탄사’로 분류하고 이렇게 설명한다. נָא는 요구, 경고, 또는 간청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탄원의 정황에서는 정중함과 겸손함을 표현한다.⁵²⁾ 이처럼 게제니우스는 두 가지 다른, 심지어 반대 성향의 용법을 말하고 있다.

주옹과 무라오카(Jouon and Muraoka)는 게제니우스가 말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이들은 נָא를 ‘감탄사’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일종의 ‘간청의 불변화사’로 정의한다. 주옹과 무라오카에 따르면, נָא는 주로 간청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용되는데, 대략 영어의 ‘please’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⁵³⁾

하지만 램딘(Lambdin)은 נָא를 간청의 불변화사로 보려는 전통적인 견해

48) Ibid., 269-270.

49) Ibid., 286, 294. 여기에서 레벨은 브라운-레빈슨의 ‘체면 위협 행위’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P. Brown and S.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68-71.

50)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272.

51)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 110d n. 1.

52) Ibid., § 105 n. 1.

53)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27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105 c.

에 반대한다.⁵⁴⁾ 그래서 영어로 ‘please, I pray’ 등으로 번역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차라리 번역하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 램딘이 נָּ를 간청의 불변화사로 보지 않는 이유는 נָּ가 ‘נָּן’와 함께 사용되는 문장들을 보면 간청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램딘은 이러한 문장들에서 נָּ는 오히려 문제의 명령이 앞의 진술이나 상황의 논리적 결과임을 표시해 주는 불변화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램딘의 주장은 윌키와 오코너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었다. 이들은 נָּ가 간청의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נָּ가 ‘נָּן’이나 ‘נָּן’와 같은 논리의 불변화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결단의 청유형과 함께 사용되는 문장들에서 찾고 있다.⁵⁵⁾ 하지만 그들도 נָּ가 간청의 불변화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⁵⁶⁾

히브리어 화용론이나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상당수 학자들은 히브리어 נָּ가 대부분의 경우 ‘정중의 표시(a marker of politeness)’라는 입장을 취한다. 윌트(T. Wilt)는 브라운(P. Brown)과 레빈슨(S. C. Levinson)의 정중 이론에 기반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⁵⁷⁾ 그에 따르면, 히브리어 의지형에서 נָּ가 사용되는 경우는 요청을 완화하려는 전략이며, נָּ가 사용되지 않는 의지형은 ‘명백한(bald) 요청’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급한 상황이거나 청자가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바랄 때, 화자는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명백한 요청을 할 때에는 נָּ를 생략한 언어 전략을 택한다.⁵⁸⁾

술만(A. Shulman)은 담화분석 관점에서 נָּ의 화용론적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⁵⁹⁾ 이를 위해 그는 נָּ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장 단위 너머의 정황을 조사한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나 구조는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보다 큰 단위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온전히 이해되기 때문이다.⁶⁰⁾ 그는 히브리어 지시형, 명령형, 그리고 청유형 문장에서 נָּ가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와 다르게 요청의 정황이라고 결론 내린다.⁶¹⁾ 이러한 기능의 נָּ는 일종의 ‘정중의 표시(표지)’로 영어의 ‘please’나 ‘let me/allow me’와 아주 유사하다.⁶²⁾ 흥

54) T. O. Lambdi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New York: Scribner, 1971), 170.

55)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 34.7.

56) *Ibid.*, § 32 n. 32 그리고 § 31 n. 63.

57) T. Wilt,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 *VT* 46:2 (1996), 237-255.

58) *Ibid.*, 244-246.

59) A. Shulman, “The Particle נָּ in Biblical Hebrew Prose”, *HS* 40 (1999), 57-82.

60) *Ibid.*, 58-60.

61) *Ibid.*, 60-81.

62) *Ibid.*, 82. 한편, 크리스티안센(B. Christiansen)과 같은 학자는 윌트(T. Wilt)나 술만(A. Shulman)의 주장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 B. Christiansen, “A Linguistic Analysis of the

미로운 사실은 사회적 위상이 높은 화자일지라도 강제적인 명령의 형태를 피하고 싶을 때는 지시형과 함께 נָּ를 사용하여 보다 정중한 표현을 실현한다는 점이다.⁶³⁾

결론적으로 불변화사 נָּ는 ‘간청의 불변화사’ 혹은 ‘정중의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외 다른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נָּ가 정중 어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본문의 맥락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3.3. 구약성서와 정중 어법

성서 히브리어 학자인 밀러와 레벨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성서 히브리어의 정중 어법은 구약학계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일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다. 우선 브라이언 에스텔(B. D. Estelle)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밀러와 레벨이 전기 히브리어 본문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반면에, 에스텔은 자신의 2001년도 학위논문을 통해 후기 히브리어(에스라, 다니엘, 에스더)와 아람어 문헌에 나타난 정중 어법을 연구했다.⁶⁴⁾ 그는 브라운과 레빈슨의 일반 정중 이론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레벨과 밀러의 히브리어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⁶⁵⁾ 다시 말해, 에스텔은 한편으로 일반 언어학의 정중 어법을 탐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히브리어 학자들의 공손 어법을 연구의 기초로 삼고 있다.⁶⁶⁾ 에스텔은 학위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정중 어법에 관한 글을 최근에 다시 발표했다.⁶⁷⁾ 그는 정중 어법을 세 가지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1) 호칭 및 직책명, (2) 1-2인칭을 대신하는 3인칭 용법, (3) 비인칭 또는 불특정 행위자.⁶⁸⁾

브릿지(E. J. Bridge)의 정중 어법 연구는 그의 2011년도 학위논문에서 출발한다.⁶⁹⁾ 그의 연구는 일반 언어학자인 브라운과 레빈슨의 이론에 기초

Biblical Hebrew Particle Nā': A Test Case," *VT* 59 (2009), 379-93.

63) A. Shulman, "The Particle נָּ in Biblical Hebrew Prose", 62.

64) B. D. Estelle, "Know Before Whom You Stand: The Language of Deference in Some Ancient Aramaic and Hebrew Documents",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1.

65) *Ibid.*, 23-36.

66) "I adopt a consensus approach to studies of politeness and deference." *Ibid.*, 40.

67) B. D. Estelle, "Esther's Strategies of Becoming an עֲבָרָה מְשֻׁבָּלִית", *Hebrew Studies* 53 (2012), 61-88.

68) *Ibid.*, 64-87. 한편, 에스텔(B. D. Estelle)은 자신의 논문에서는 에스더기의 정중 어법을 네 가지 항목으로 다루었는데, 2012년 글에서는 '앞에서(קִדְמָה)'라는 전치사를 정중 어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69) E. J. Bridge, "The Use of Slave Terms as Deference and in Relation to God in the Hebrew

하고 있고, 레벨이나 밀러와 같은 히브리어 학자들의 견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⁷⁰⁾ 그래서 용어상으로도 공손 또는 존경(*deference*) 보다는 정중(*politeness*)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일반 언어학의 정중 이론이 레벨이나 밀러의 공손 어법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⁷¹⁾ 브릿지는 최근의 연구에서 정중한 표현이 설득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⁷²⁾ 그는 브라운과 레빈슨의 정중 이론을 유다가 애굽의 총리(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장면(창 44:18-34)에 대한 분석의 틀로 사용한다.⁷³⁾ 브릿지의 분석에 따르면, 유다의 말이 시작하는 18절에 전통적인 정중 어법이 집중되어 있다.⁷⁴⁾ 여기에서 유다는 요셉을 ‘나의 주’로 부르고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낮추어 부르고 있다. 그리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때, 공손의 불변화사 ‘*ni*’를 지시형 뒤에 사용하고 있다. 이어서 유다가 요셉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이것은 브라운-레빈슨이 말하는 ‘소극적 정중’ 전략의 하나로 일종의 ‘사과’로 볼 수 있다. 유다는 그의 요청이 요셉을 화나게 할 의도가 없지만, 본의 아니게 요셉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사과’한 것이다.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요셉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바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 정중’ 전략의 하나이다.⁷⁵⁾ 상대방의 관심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그를 높게 평가하거나 칭찬하는 것이다. 19-32절은 33절에서 요셉 대신 자신을 남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이유 제공’과 같다.⁷⁶⁾

2.3.4. 한국 구약학계

구약성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케보드 아도나이)’을 한국어 존대법 측면에서 연구한 학자는 김동혁이다.⁷⁷⁾ 김동혁은 ‘주님의 영광’이

Bible”, Ph.D.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2011.

70) 브릿지(E. J. Bridge)는 구약성서와 고대근동 문헌에 대하여 정중 어법 관점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E. J. Bridge, “The ‘Slave’ Is the ‘Master’: Jacob’s Servile Language to Esau in Genesis 33.1-17”, *JSOT* 38:3 (2014), 263-268; E. J. Bridge, “Polite Israel and Impolite Edom: Israel’s Request to Travel through Edom in Num 20:14-21”, *JSOT* 35:1 (2010), 77-88.

71) 필자가 ‘공손 어법’ 보다는 ‘정중 어법’을 선호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된다.

72) E. J. Bridge, “Polite rhetoric: Judah’s plea to Joseph in Genesis 44. 18-34”, *JSOT* 43:4 (2019), 571-587.

73) *Ibid.*, 576-580.

74) *Ibid.*, 581-583.

75) *Ibid.*, 582-583.

76) *Ibid.*, 583-584.

77) 김동혁, “에스겔서의 ‘주님의 영광’의 존대 문제”, 「성경원문연구」 33 (2013), 147-154.

문법적 주어일 때 상응하는 서술어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존대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많은 경우 이 용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뜻하기 때문이다.⁷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존대하는 것이 성서를 경전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⁷⁹⁾ 짧은 번역노트라는 형식의 제한성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표현들을 존대법 측면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 사실 이미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의 영’과 같은 표현도 존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겔 3:16; 3:24 등 참조).

구약성서에 나타난 정중한 표현들이 한글 성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학자들로 김성언과 김유기가 있다.⁸⁰⁾ 우선, 김성언의 연구는 정중 어법 관점에서 구약성서 내러티브 본문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⁸¹⁾ 무엇보다 김성언의 정중 어법 연구는 다른 한국 학자들과 달리 히브리어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은 연구의 주요 관심을 히브리어의 특징보다는 우리말 존대법 자체에 두고 있다. 김성언은 밀러와 레벨이 진행했던 연구를 우리말로 옮길 때 ‘정중 어법’보다는 ‘공손 어법(deferential language)’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⁸²⁾ 밀러나 레벨이 말하는 공손 어법과 김성언이 사용하고 있는 정중 어법의 관계는 그의 2015년 논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정중 어법을 공손 어법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공손 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도 에스더에게 정중한 표현이나 격식 있는 궁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하수에로가 다른 신하들을 ‘너’라고 부르고 있지만, 에스더를 부를 때에는 이름 뒤에 ‘왕후’라는 직책명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5:3; 7:2 참

78) Ibid., 147.

79) Ibid., 153.

80) 김성언과 김유기의 연구는 이들의 1차적인 탐구 대상이 성서 히브리어의 정중 어법이라는 점에서 먼저 소개한 김동혁의 연구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 김동혁의 연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서술어를 존대 표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탐구의 1차적인 대상은 한글 성서 또는 한국어 존대법이 된다. 반면에 김성언과 김유기는 탐구의 기본 대상이 히브리어 구약성서다. 물론 세 학자 모두 최종적으로는 히브리어 성서의 표현을 한국어 성서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탐구한다.

81)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84-106.

82) 위 각주 41 참조.

조).⁸³⁾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에스더를 좀 더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말로 옮길 때에는 ‘하오체’가 가장 적절하게 보인다.⁸⁴⁾

김유기는 히브리어 대화문에서 화자가 청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당신의 종’이라는 겸양 표현을 탐구한다.⁸⁵⁾ ‘당신의 종’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상대방의 종인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자와 차이나는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신분이 낮은 청자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겸양 표현이다. 하지만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이 비슷한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 사이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을 요나단의 종으로 부르는 장면을 제시한다(삼상 20:7-8).⁸⁶⁾ 이러한 겸양 표현은 일종의 청자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대화 전략이다. 김유기는 이 부분에서 레벨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렇게 3인칭으로 언급하는 것은 “1인칭과 2인칭 형태를 사용할 때 생기는 친밀감의 표출을 피하는 것이며, 화자와 청자가 동등하다는 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⁸⁷⁾ 김유기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화자(사무엘)가 높은 청자(엘리) 앞에서 겸양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엘리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겸양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⁸⁸⁾ 김유기는 한글 성서에서 한나와 엘가나 부부 사이의 대화 장면을 가부장적으로 번역하는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⁸⁹⁾ 대표적으로 남편(엘가나)이 아내(한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번역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성서 원문에 엘가나의 위상이

83) 김성연,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98.

84) Ibid., 98-100.

85) 김유기,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번역: 사무엘상 1-3장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9 (2016), 129-147.

86) Ibid., 132, 135. 반면에 레벨은 이 장면을 근거로 요나단이 다윗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고려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113, 각주 7을 참조하십시오. 한글 성경도 서로 다른 존대법을 적용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두 사람의 위상을 비슷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윗과 요나단 모두 ‘헤라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했다. 반면에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예사낫출인 ‘하계체’를 사용한 반면에 다윗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삼상 20장 전체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너’ 또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정중 어법을 사용한 경우(삼상 20:7-8)가 있고, 헤어지는 장면(삼상 20:41)에서 세 번 절하는 것을 고려하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87)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267.

88) 김유기,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번역: 사무엘상 1-3장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143-144.

89) Ibid., 138-139.

더 높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점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관계가 요구되는 오늘날 언어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요소가 반영된 번역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⁰⁾

2.4. 예언자의 위상과 정중 어법

구약성서에서 예언자의 사회적인 위상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는 왕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장면에서는 정중어법이나 공손어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나의 주’나 ‘왕이시여’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단이 다윗의 임기 말기에 보였던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나단이 다윗 왕 앞에서 절을 하고 ‘나의 주 왕이시여’라고 부른 후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누구인지 조심스럽게 묻는다(왕상 1:22-27). 왕위 계승처럼 민감한 문제를 질문하면서 자칫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정중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처럼 왕과 예언자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언자들이 차지했던 실제 ‘역사적 위상’과 성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언자들의 ‘문학적 위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밀러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성서) 내러티브 내에서, 등장인물 사이의 사회적 관계보다는, 화자의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공손 어법(deferential language)을 지배한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말할 때나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말할 때, 공손 어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⁹¹⁾

이스라엘 왕이나 이집트 파라오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여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당시 궁중에서 사용하는 어법에 따라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파라오 앞에 선 모세나 아합에게 말하는 엘리야는 정중한 표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엘리야가 이세벨

90)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의 언어 습관을 반영할지 아니면 오늘날 요구되는 수평적인 언어를 사용할지 여부는 우리말 존대법을 적용해야 하는 성서 번역자의 가장 어려운 고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엘가나가 한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삼상 1:8)을 고려하면, 아내의 고통을 공감하고 염려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332 참조. 따라서 엘가나가 사용하는 존대법은 격식체로는 ‘하오체’, 비격식체로는 ‘해요체’가 적절하게 보인다.

91) C. L. Miller,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280.

의 살해 위협을 피해 남쪽 광야 지역으로 도망간 예언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왕상 19:1-5). 밀리는 예언자의 경우에는 실제 사회적 위상이 반영되기 보다는 저자 혹은 화자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밀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성서 내러티브의 화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예언자가 세속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왕 앞에서도 결코 공손 어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이다.

레벨도 왕과 예언자의 사회적 위상과 관계를 정하는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왕보다 힘이 더 세고, 어떤 경우에는 더 약한 예언자는 이와 같은 등급에 위치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왕과 예언자는 위상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⁹²⁾

레벨이 지적하듯이, 왕과 예언자의 관계는 왕-신하-일반백성 순서로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사회적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레벨은 왕과 예언자 관계는 사회적 위상 차원에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둘 사이의 사회적 위상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힌다.

성서 번역자에게는 예언자의 실제 사회적 위상보다 성서 속에서 예언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물론 성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내레이터를 통해 묘사되고 있는 예언자의 위상을 번역자는 더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서 번역자가 해야 할 작업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메시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나아만 치료 본문 연구

나아만 치료 본문은 다양한 신분의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상에 따라 적절한 언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회적 위상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다. 나아만

92)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43.

이 집안의 여종에게는 ‘주인’(3절)이지만, 그에게도 섬겨야 할 ‘주인’(4절), 즉 왕이 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나아만이 예언자 엘리사와 어떠한 태도와 언어 전략으로 대화하는지 살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3.1. 나아만의 위상

이야기의 도입부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그는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이것은 전에 아람을 구한 공로 때문으로 보인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상은 상대적이다. 자신의 종으로부터는 섬김을 받는 ‘주인’이지만, 그에게도 아람 왕은 섬겨야 할 주인이다.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왕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한 군대 장관이다. 이러한 그의 위상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어진다. 그가 대면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한편, 가톨릭의 『성경』은 ‘왕’ 대신 일관되게 ‘임금’으로 옮기고 있다.

3.2.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아내

소녀는 여주인에게 주인(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제안한다(5:3).

『개역개정』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십시오체
『새번역』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십시오체
『공동개정』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하십시오체
『성경』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이 나병을 고쳐 주실 텐데요.”	하십시오체
제안사역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 분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병을 고쳐 주실 텐데요.”	하십시오체

어린 소녀는 제안하는 이유를 곧바로 설명한다. 소녀는 그 선지자가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여주인은 소녀의 제안을 남편(나아만)에게 전했을 것이다.

3.3. 나아만과 아람 왕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제안을 좋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내레이터⁹³⁾는 아람 왕이 나아만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지적한다(5:6).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주인’이지만, 그에게도 주인이 있다. 바로 왕이다.

『개역개정』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해라체
『새번역』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 보도록 하시오.”	하오체
『공동개정』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하오체
『성경』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 보시오.”	하오체
제안사역	“가 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소.”	하오체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서는 아람 왕이 나아만에 대하여 높은 직위의 신하라는 점을 반영하여 ‘하오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존대법 측면에서 『개역개정』이 갖는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개역개정』은 왕과 같이 사회적 위상이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하에게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계급의 차이가 분명했던 고대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장점을 지닌다. 고대 사회의 신하는 자신의 주인(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다. 아람 왕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단지 ‘나의 종(에베드)’일 뿐이다(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존중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하오체’가 적절하게 보인다. 왕처럼 최고의 위상을 가진 사람과 신하라는 위상 차이를 표현하면서도, 그 신하가 어느 정도 높은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93) 대화의 두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로 부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화 주체로서의 ‘화자’와 구별하기 위해 내레이터를 ‘화자’로 번역하지 않았다.

3.4.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 둘 사이에 엄연한 위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역개정』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소서체 ⁹⁴⁾
『새번역』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체
『공동개정』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하십시오체
『성경』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십시오체
제안사역	“내가 나의 종 나아만을 그대에게 보내니 이 글이 그대에게 이르거든 그대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오.”	하오체

우선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성서에서 최고 단계의 높임법인 ‘하십시오체’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하는 말을 직접화법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호 존대하는 경우로 해석한 결과다.

하지만 히브리어 문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감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우선 아람 왕은 편지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단지 ‘너(you)’라는 2인칭 대명사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언어적인 표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는 서로 대등하거나 아니면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사용하는 어법이다. 내레이터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당시의 국제질서라는 역사적인 정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합 왕 통치 시대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국가였다. 이것은 5장 7절 이스라엘 왕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아람 왕의 요구를 들어 주지 못할 경우

94) ‘하소서체’는 현대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지 않지만 상대 높임법 중의 하나로 상대를 아주 높이는 경우에 사용된다.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는다. 나아만이 가지고 간 선물들은 아람 왕이 보낸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열세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두 왕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글 성서에서는 최고 등급의 존대법보다는 ‘하오체’ 정도로 한 단계 낮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에서 아람 왕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나의 신하’로 소개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 본문은 ‘나의 신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나의 종’으로 나타난다. ‘에베드’라는 단어가 ‘신하’의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번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 접근도 가능하다. 그냥 ‘나의 종’으로 남겨 둬으로써 한국 독자들에게 고대 사회에서는 신하도 그저 ‘종’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5.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

나아만은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대면한다. 하지만 성서 본문에서는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는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둘 사이의 위상을 평가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비록 강대국의 신하로서 이스라엘 왕을 대면하는 것이지만 나아만은 일국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웃국가의 왕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을 치료받게 해달라는 요청하는 장면이기에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3.6.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한다.⁹⁵⁾ 『개역개정』이 약간 낮은 존대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성서는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는 장면을 최고 등급의 존대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5:8).

95) 앞서 여종은 엘리사를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다(5:3 참조). 5:20에서도 내레이터는 엘리사의 직책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다.

『개역개정』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소서체
『새번역』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하십시오체
『공동개정』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십시오체
『성경』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십시오체
제안사역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소? 그를 나에게 보내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을 줄을 알게 될 것이오.”	하시오체

우선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개역개정』과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왕(개역개정)/임금님(성경)’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문에는 단순히 2인칭 대명사인 ‘너’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와 같은 별도의 존대법이 없는 영어 성경들은 모두 그대로 ‘you’로 남겨두고 있다. 2인칭 대명사는 아마도 왕에 대하여 높임법을 사용하는 문화에 익숙한 번역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2인칭 대명사를 ‘당신’이나 ‘그대’로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개역개정』과 『성경』 번역자들은 ‘당신’이나 ‘그대’보다 더 존대하는 표현인 ‘왕/임금님’을 추가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본문에 없는 단어를 첨가하여 번역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지상의 그 어떤 인간보다 높은 위상을 갖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아만을 치료할 ‘하나님의 사람’이다(8절). 이러한 경우에 내레이터는 왕의 위상이 높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이기 위한 존대 표현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내레이터에게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예언자의 위상이나 권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왕을 존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인 ‘내 주 왕’⁹⁶⁾ 또는

96) ‘내 주 왕’이라는 표현은 구약성서 49절에서 총 55회 사용되고 있다. 삼상 24:9; 26:17, 19; 29:8; 삼하 3:21; 9:11; 13:33; 14:9, 12, 17, 18, 19, 22; 15:15, 21; 16:4, 9; 18:31, 32; 19:20, 21, 27, 28, 31, 36, 38; 24:3, 21, 22; 왕상 1:13, 18, 20, 21, 24, 27, 31, 36, 37; 2:38; 20:4; 왕하

‘왕’이 사용되지 않고, 2인칭 ‘너(you)’가 사용될 때에는 본문의 의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명령형 대신 특정 형태의 지시형(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만약 단순 형태의 지시형(נָּ)이라면 명령법과 유사하지만 여기에 간청의 불변화사인 ‘נָּ’를 첨가하여 보다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다.⁹⁸⁾ 이것은 엘리사가 왕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여 왕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곡한 지시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완곡한 지시형이 곧바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사회적 위상이 더 높은 청자도 ‘지시형 + נָּ’ 형태의 정중 어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만은 엘리사와 왕의 위상이 서로 동등하다고 본다.⁹⁹⁾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위상이 비슷한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여 정중한 어법을 사용할 경우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하오체 또는 하시오체가 가장 적절하게 보인다. ‘하시오체’는 ‘하오체’의 한 유형이지만 선어말어미 ‘-시’를 첨가하여 ‘주체높임’의 의미를 첨가한다. 하지만 완곡한 지시형의 어감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하시지요체’도 대안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¹⁰⁰⁾

3.7. 엘리사와 나아만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의 존대법 화계를 정하는 문제도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다. 일단 『개역개정』과 『성경』은 정반대의 존대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5:10).

6:12, 26; 8:5; 대상 21:3, 23; 사 36:8; 렘 37:20; 38:9; 단 1:10.

97) 예를 들어, 예언자가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단락에서는 ‘내 주 왕’이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너’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장면이 나단이 다윗에게 심판을 전하는 단락이다(삼하 12장). 논란이 되는 구절 중 하나인 삼하 12:7에서 『개역개정』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성경』은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옮기고 있다. 『성경』은 여기에서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임금님’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불필요한 첨가로 보인다.

98) P. Jou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2006), § 105 c. 그리고 A. Shulman, “The Particle ‘נָּ’ in Biblical Hebrew Prose”, *HS* 40 (1999), 57-82.

99) A. Shulman, “The Particle נָּ in Biblical Hebrew Prose”, 62.

100) ‘-(으)시지요’는 사회적 위상이 높은 사람에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청유형이다. ‘-(으)시지요’는 비격식체로 ‘하십시오체’보다 약간 낮은 존대법으로 볼 수 있다.

『개역개정』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해라체
『새번역』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	(해라체) ¹⁰¹⁾
『공동개정』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오.”	하오체
『성경』	“요르단 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십시오.”	하십시오체
제안사역	“그대는 가서 요단에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그대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오.”	하오체

위에서 보듯이, 모든 성서가 서로 다른 존대법 화계를 사용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해라체’, 『공동개정』은 ‘하오체’를 사용한 반면에, 『성경』은 최상위 존대법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성경』의 번역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번역상의 전체적인 원칙에 근거한 존대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왕하 5:10은 너무 확일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예언자의 위상이 그 누구보다도 높다는 사실은 구약성서 전반에 나타난다. 나아만에게 존대법을 사용하는 엘리사의 말이 어울리려면 엘리사는 최소한 나아만을 접견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어야 했다. 『성경』이 아래 5:15에서 나아만의 말도 ‘하십시오체’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존대하는 것으로 보아, 『성경』은 두 사람의 위상을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서 본문이 의도한 위계상의 질서가 전혀 아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보다 높은 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만 자신도 처음에는 엘리사를 자신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최소한 자신에게로 나아와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5:11).¹⁰²⁾ 자신은 강대국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며 엘리사는 약소국의 예언자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아만이 걸으려는 요

101) 간접화법으로 표현해서 존대법 체계가 불명확하다.

102) 예를 들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나가서 맞이한 것과 같은 장면을 기대했을 것이다(출 18:7).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창 14:17; 30:16; 민 22:36; 사 4:22; 11:34; 삼상 30:21; 삼하 15:32; 16:1; 왕상 18:7; 왕하 2:15; 4:31; 5:21; 8:9; 9:18; 10:15; 대상 12:17; 15:2; 19:2. 나이나 신분이 높아도 반가울 때에는 먼저 나가서 맞이하기도 한다(창 29:13; 33:4; 사 19:3). 대적하기 위하여 막아설 때에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된다(민 20:20; 왕하 23:29//대하 35:20).

단 강과 다메섹의 아바나(아마나) 강 혹은 바르발 강을 비교하여 분노한 듯 하지만(12절), 그가 분노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만은 자신의 ‘체면(face)’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가서 서 있었던 반면에(9절), 엘리사는 자신에게 마중을 나오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명령했을 뿐이다(10절).

이러한 나아만의 인식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의 질병이 치료된 후에 일어난다. 나아만은 이제 스스로 엘리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5:15).

『개역개정』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소서체
『새번역』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십시오체
『공동개정』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십시오체
『성경』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하십시오체
제안사역	“이제야 저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종이 드리는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십시오체

나아만은 ‘히네-나(הִנֵּנִי-נָא)’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말을 시작한다. 이 표현은 요청하기에 앞서 화자가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자 할 때 종종 사용된다. 술만도 ‘히네-나’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요청의 내용이 곧바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요구 사항이 등장한다고 주장한다.¹⁰³⁾ 여기에서 ‘히네-나’는 뒤이어 나오는 선물을 받으라(‘카흐-나[קַח-נָא]’)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⁰⁴⁾ 나아만은 선물을 받아 줄 것을 정중히 요

103) A. Shulman, “The Particle נָא in Biblical Hebrew Prose”, 80-81. 술만의 이 주장은 레벨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300-301.

104) 선물을 주는 장면도 정중 어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청하기 위해 이러한 고도의 언어 전략을 선택했다.¹⁰⁵⁾ 이 선물은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에게 왔을 때 주려고 시도했어야 하지 않을까? 뒤늦게라도 주어야 할 선물이라면 엘리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더더욱 공손한 태도로 선물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히네-나’와 ‘카흐-나’가 의미뿐 만 아니라 음성학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제 자신은 단지 ‘종(에베드)’이라고 부른다(5:15, 17-18).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백성이 왕에게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사용하는 겸손한 표현이다.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위상이거나 심지어 낮게 보았던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위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답례의 표시로 나아만은 선물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한다. 그러자 나아만은 다시 새로운 내용을 요청한다. 나아만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노새 두 마리 분량의 (이스라엘 땅의) 흙을 ‘주라고’ 부탁한다(17절). 이 흙으로 나아만은 제단을 만들 것이다(출 20:24-25 참조). 여기에서 나아만은 종종 정중 어법에 사용되는 ‘수동태 지시형’과 함께 간청의 불변화사 ‘나(נָּ)’를 추가함으로써 최고 수순의 히브리어 정중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레벨은 첫 번째 요청이 거절되자, 다시 요청할 때에는 나아만이 더욱 공손한 언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⁰⁶⁾

헤어지기 전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람 왕이 립몬 신전에 예배하러 갈 때 동행해야하므로 어쩔 수 없이 립몬 신전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엘리사는 마지막 인사말로 나아만을 안심시킨다(5:19).

『개역개정』	“너는 평안히 가라”	해라체
『새번역』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하오체
『공동개정』	“걱정말고 가시오.”	하오체
『성경』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십시오체
제안사역	“평안히 가시오.”	하오체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281. 한편,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받고 있다고 말할 때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창 33:11 참조).

105) 술만은 나아만과 엘리사의 위상이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술만의 견해는 지지되기 어렵다. A. Shulman, “The Particle נָּ in Biblical Hebrew Prose”, 73. 이것은 술만이 앞서 자신의 글 62쪽에서 엘리사와 왕의 위상이 동일하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술만의 주장대로라면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이 동등한 위상이라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06) E. J. Revell,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281-285.

다시 한 번 『개역개정』과 『성경』은 정반대의 존대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예언자 엘리사의 위상과 권위를 다소 높게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나아만의 위상을 지나치게 높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번역들보다는 나아만보다 높은 엘리사의 위상을 표현하면서도 나아만을 어느 정도 존대하기 위해 ‘하오체’가 가장 적절하게 보인다.

4. 나가는 말

열왕기하 5장 본문은 신분상의 위계질서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 본문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위상 차이는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적절한 존대법을 사용해서 번역해야 하는 한글 성서 번역자들 입장에서는 열왕기하 5장은 아주 난해한 본문 중 하나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각 한글 번역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열왕기하 5:10과 5:19처럼 정반대의 존대법을 사용하여 번역하는 경우들도 보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신분상의 위계질서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의 언어 사용자들처럼 상호존중의 가치를 더 중요시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개역개정』은 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성경』은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 하지만 연구자가 제안한 사역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며 다음 논의와 연구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존대법 중심의 ‘제안사역’에 머물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중 어법이 반영된 번역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Keywords)

정중 어법, 존대법, 공손/공손한, 나아만, 예언자, 왕, 종.

Politeness strategy, Honorifics, Deference/Deferential, Naaman, Prophet, King, Servant.

<참고문헌>(References)

- 김광해, 박호영, 신명선, 『고등학교 화법』, 서울: 형설출판사, 2003.
- 김동혁, “에스겔서의 ‘주님의 영광’의 존재 문제”, 『성경원문연구』 33 (2013), 147-154.
-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재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84-106.
- 김유기, “히브리어 겸양 표현의 번역: 사무엘상 1-3장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9 (2016), 129-147.
-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9.
- 이재원, “나이만 내러티브에 나타난 종 모티프: 어휘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 『성경원문연구』 43 (2018), 98-121.
-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체언과 용언의 표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5 (2004), 59-81.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7-122.
-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 - 청자 존재법 번역 문제”, 『신약연구』 7:4 (2008), 619-648.
- 조지윤, “존재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 한길,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서울: 도서출판역락, 2002.
- Beal, L. M., Wray, *1 & 2 Kings*, Apollos: Nottingham, 2014.
- Bridge, E. J., “The ‘Slave’ Is the ‘Master’: Jacob’s Servile Language to Esau in Genesis 33.1-17”, *JSOT* 38:3 (2014), 263-278.
- Bridge, E. J., “The Use of Slave Terms as Deference in Relation to God in the Hebrew Bible”, Ph.D.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2011.
- Bridge, E. J., “Polite Israel and Impolite Edom: Israel’s Request to Travel through Edom in Num 20:14-21”, *JSOT* 35:1 (2010), 77-88.
- Brown, R. and Gilman, A.,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T. A. Sebeok, 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0, 253-276. Reprint in C. B. Paulston and R. Tucker, eds., *Sociolinguistics: The Essential Readings*, Oxford: Blackwell, 2003, 156-176.
- Brown, P. and Levinson, S.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Cho, Ji-Youn,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Ph.D. Dissertation, Vrije University, 2008.
- Christiansen, B., “A Linguistic Analysis of the Biblical Hebrew Particle Nā’: A Test Case,” *VT* 59 (2009), 379-93.

- Cogan, M. and Hayim T., *II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5.
- Cohn, R. L., *2 Kings*, Colled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Estelle, B. D., “Esther’s Strategies of Becoming an עֶבֶר מִשְׁכִּיל”, *Hebrew Studies* 53 (2012), 61-88.
- Estelle, B. D., “Know Before Whom You Stand: The Language of Deference in Some Ancient Aramaic And Hebrew Documents”,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1.
- Fox, M. V., *Character and Ideology*, 2nd ed.,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1, 2001.
- Goffman, E., “On Face-work: An Analysis of Ritual Elements in Social Interaction”, *Psychiatry: Journal for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cesses*, 18:3 (August, 1955), 213-240; Reprint in G. Erving,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Pantheon, 1967, 5-46.
- Hobbs, T. R., *2 Kings*, WBC 13, Waco: Word Books, 1985.
- Hwang, Juck-Ryoon,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1990), 41-55.
- Jouon, P.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2006.
- Lakoff, R. T., *Language and Woman’s Place: Text and Commenta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2004.
- Lakoff, R. T., “The Logic of Politeness,”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9 (1973), 292-305.
- Leech, G. N.,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
- Levenson, J. D., *Esther: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 Miller, C., *The Representatio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 Linguistic Analysis*, Atlanta: Scholars, 1996.
- Revell, E. J., *The Designation of the Individual: Expressive Usage in Biblical Narrative*, Kampen: Kok Pharos Publishing House, 1996.
- Shulman, A., “The Particle נָ in Biblical Hebrew Prose”, *HS* 40 (1999), 57-82.
- Thomas, B., “The Language of Politeness in Ancient Hebrew Letters”, *Hebrew Studies* 50 (2009), 17-39.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 Wilt, T.,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 *VT* 46:2 (1996), 237-255.

<Abstract>

**Prophet's Social Status and Politeness Strategies:
A Case of Naaman Narrative in 2 Kings 5:1-19**

Sung-On Kim
(Yonsei University)

2 Kings 5 is an interesting text in which a Syrian general is eventually cured of his disease with the help of several characters. There are at least 10 characters of various classes, ranging from a young girl to the king of Syria. The differences in social status between the characters are largely determined by the positions they hold. Titles such as king, general, and servant clearly state their place in society at the time. And the low-status person is expressing his humble attitude through the strategy of lowering himself to a *servant* and calling the other *my lord*. Social status is a relative concept. General Naaman is in a higher position than his servants, but in front of the king, he is just a servant. Naaman calls the king of Syria master and lowers himself as servant.

In cases where the differences in status are not clear and are somewhat ambiguou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A typical case occu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ophet and a king or between a prophet and a high-ranking official. In the text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of Syria and the king of Israel, or the dialogue between Elisha and Naaman can be transla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interpretation.

The biblical text leaves several marks showing the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characters. When Bible translators translate based on these marks, the message of the text will be delivered more clearly. This study intends both to point out how well the Korean Bible reflects the character's utterances that are us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ir status and situations as revealed in the Hebrew text, and if there are any shortcomings, to suggest alternatives.

First of all, it will depend on whether you want to give a mor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hierarchy that prevailed in ancient society, or whether you want to give more value to mutual respect like the people of today. The translation proposed by the present author tried to harmonize between these two positions, but is only a provisional, first step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Above all, I remained on the suggesting a translation that focuses on honorifics in this study, and expect a translation reflecting more diverse politeness strategies to emerge in subsequent studies.